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2/24 월

행 2:32-33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행 1:1-2, 4-5, 8, 11, 21

1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2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5 왜냐하면 요한은 물속에 침례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 안에 침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11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

2/25 화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벧전 1:18-19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행 9:17, 31

17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31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행 2:32-36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35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2/26 수

행 16:6-7

6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행 9:15-16

15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16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롬 8: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고후 1:5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골 1: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눅 1: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마 1:18, 20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20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2/27 목

롬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 1:19-20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후 3:2-6, 8

2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쓰였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 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2/28 금

행 1:3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 주셨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눅 17:20-21

- 20**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행 8:12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행 19: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변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행 20:25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행 28:23, 31

23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는데, 그날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해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서와 신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3/1 토

행 28:30-31

30 바울은 만 이 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행 14: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벧후 1:3-11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3/2 주일

계 21:1-4

1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4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계 22:1-5, 14, 17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